

# 광양경제구역내 1000억 규모 공장건설, 안전불감증 논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내 1000억 원 규모의 알루미늄 공장을 짓는 현장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광양경제청 등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 세풍산단 외국인투자구역 내 1호 기업인 중국 알루미늄 회사의 한국 공장인 A사는 광양경제청의 사업 승인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가진 뒤 1년여 동안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 회사의 중국 본사는 40여 개국, 2200여 개 고객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최대의 알루미늄 판재 포일 생산업체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양경제청 구역내 투자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가정주부들을

## 추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 및 위험지 접근 금지 시설 '허술'

### 공사관계자 "한건의 사고도 없었고 안전시설도 갖춰" 주장

추적으로 공장건설 반대 운동이 일기도 했다. 알루미늄생산 과정에서 공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반대에 투자를 유치한 광양경제청은 사업 포기 직전까지 가야 했다.

이 공장은 세풍산단 외국인투자지역 8만2627㎡ 부지에 10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건설한 뒤 알루미늄 판재와 포일을 생산할 예정이다.

400명의 고용창출과 연 1만 3000TEU 화물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

화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장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가 1년여 동안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자칫 건설 현장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토목기초공사인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 10여m 굴착시 주변에 추락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보호시설을 갖추지 않아 근로자 추락 시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하 기초콘크리트 파일 작업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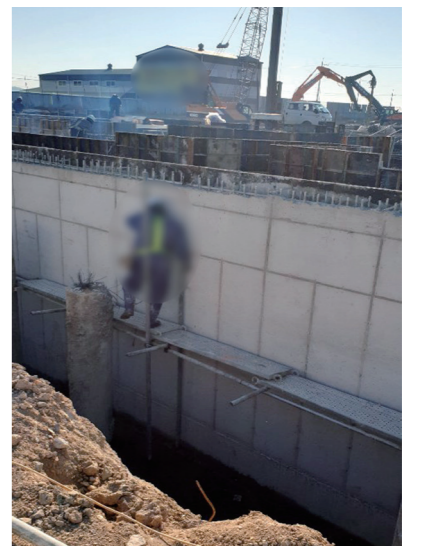
분개 한 작업자가 비계 위에서 일하던 중 1.5m 아래로 추락하면서 목과 어깨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외국 투자 기업을 유치한 광양경제청도 감독기관으로서 공사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지만 관리·감독은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안전시설 등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장 관계자는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고, 안전시설도 모두 갖추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 광양시 세풍산단 외국인투자구역 내 1000억 원 규모의 공장건설 현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승차 성탄 예배  
해 예배를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씨티교회 승차 성탄 예배가 열린 2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송곡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신자들이 차량에 탑승

## '성교육 영화 상영 논란' 광주 지역 중학교 도덕교사 정직 3개월

### 광주시교육청 18일 해당 교사에 징계결과 통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국도덕교사모임이 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베이상헌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성교육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 영화 상영과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SNS를 통한 신고 학생들에 대한 가해 논란이 일었던 중학교 도덕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징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8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모 중학교 도덕 과목 베이 모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 징계위원회 개최 사유는 단편 영화 상영,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수업 배제 불응, SNS를 통한 신고 학생들에 대한 가해 등이다.

징계위원회는 베이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내부 결재를 마치고, 베이 교사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베이 교사는 "일부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심정과 증인신청을 징계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앞서 감사팀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징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부정한 결과다. 받아들일 수 없다. 교원 소청 심사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행정이 상식적으로 판단만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청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청이 사회적 공감을 주는 해명에 나선 바도 없다. (교육청이) 수습 의지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 교사는 2018년 9~10월 1학

년, 지난해 3월 2학년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하면서 프랑스 단편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2010)를 상영했다. 10분 분량의 이 영화는 남녀 간 성역할을 뒤바꾼 '미러링 기법'을 활용, 성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6월 일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성비위 사건 매뉴얼에 따라 학생 전수조사에 이어 베이 교사의 수업 배제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고, 베이 교사가 이에 반발하며 페이스북 등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연재하자 경찰의 수사 개시 다음날인 7월24일 베이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 등 일부 장면들이 중학생이 관람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불속속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지 않고 성교육 자료로 상영, 일부 학생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도덕교사로서 성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점, 해당 영화가 사회 현실과 성별을 바꾼 생각에 불모서서 성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베이 교사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라는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해당 단편영화를 상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희희기자

## 광주시, 8·15집회 광주 인솔자 등 2명에 1억600만원 손배소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8·15집회 참석자 등 2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한 광주 236번·410번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억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236번은 서울 8·15광화문 집회에 참석 한 뒤 광주로 돌아왔다. 이후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았지만 당시 영광을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했다.

방역당국의 GPS 추적결과 집회 참석이 확인됐으며 바이러스는 가족과 유흥주점으로 확산됐다.

광주410번은 8·15광화문 집회 광주 참석자들을 인솔했지만 명단

등을 뒤늦게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앞서 지난 9월 광주시는 서울 송파60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1억 8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송파60번은 광주의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갔지만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했다.

조인호 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